



## 기업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Up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the Entrepreneurial Gifted and General students

---

저자 (Authors)	백민정, 박민서, 권경아 Min-Jung Baek, Min-Seo Park, Kyung-A Kwon
출처 (Source)	<a href="#">영재교육연구 27(3)</a> , 2017.9, 431-449 (19 pages) <a href="#">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7(3)</a> , 2017.9, 431-449 (1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영재학회</a> The Korean Society For The Gifted
URL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45753">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45753</a>
APA Style	백민정, 박민서, 권경아 (2017). 기업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href="#">영재교육연구</a> , 27(3), 431-449.
이용정보 (Accessed)	KAIST 143.***.220.135 2018/03/31 15:1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기업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백 민 정

KAIST

박 민 서

KAIST

권 경 아

KAIST

최근 사회와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가정신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에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업영재들과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SPSS 21.0과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하여 기업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기업가정신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둘째, 기업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셋째, 기업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정신과 진로성숙도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업가정신이 청소년들의 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함으로써 진로교육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선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진로교육과 연계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기업영재, 차세대 영재 기업인

### I. 서 론

일자리와 교육의 문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쟁점 중 하나이다. 다보스포럼, 가트너그룹 등에서는 앞으로 현재 직업의 63%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인지 혹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대체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

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기술 혁신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핵심 산업이 바뀌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일자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기존 직업세계를 수용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의 진로교육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래희망이 없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30%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와 자신의 역량에 대한 확신 부족, 그리고 진로를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역량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로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간주되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자기탐색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결정에 있어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한 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이현림, 천미숙, 2004),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촉진하고 진로발달과정에서 필요한 행동들을 조직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의 요소로 작용하여 진로성숙도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선중, 2005; 이은주, 2006). 진로성숙도란 진로발달의 정도와 직업준비도를 나타내주는 개념으로 개인이 속해 있는 생애단계에서 달성해야 하는 진로발달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정도(한수정, 2013)를 의미한다. 진로성숙도는 한 개인이 진로결정에 있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게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진로발달의 핵심으로 간주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 관련 과업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효희, 성태제, 2008; 이희영, 2003).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파악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직업의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대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명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동시에 새로운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진로교육에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함양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포함시켜,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진로와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McClelland, 1961), 즉 기업가정신을 길러주어야 한다.

기업가정신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창의력, 혁신성, 도전정신을 발휘하는 원동력으로 ‘진로교육’의 큰 틀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해갈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언급되고 있다(변영조, 김명숙, 양영석, 2014). 하지만 기업가정신은 단기간에 함양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부터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개발하여 미래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 기업가정신 교육은 구체적인 비즈니스 기술을 획득하도록 하기 보다는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진로선택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진로교육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적용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기업영재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진로결정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확인하여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기업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기업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해 매개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우리나라에서 창업가정신, 벤처정신 등과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을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전략적 사고와 기업가적 사고, 즉 기업가정신의 통합’을 주장하였다(Hitt, Ireland, Camp & Sexton, 2002). 창업은 학술적 연구의 관심사인 반면, 기업가정신이라는 개념의 범위는 학술적 연구 대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창업은 기업가정신이 발현되는 기업가정신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hane & Venkataraman, 2000). 창업 뿐 아니라 혁신성, 진취성 그리고 위험 감수성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 역시 하나의 기업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Baumol(1990)은 기업가정신을 모든 개인이 발휘해야 하는 자질로 간주하였다. Kuratko와 Hodgets(2004)는 기업가정신을 비전, 변화와 창조의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하였고,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 문제해결의 창조와 구현을 향한 에너지와 열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배종태와 차민석(2009)은 기업가정신은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 정부, 비영리기관, 사회적 기업에서도 발휘되어야 하며, 개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2008)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은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며 창의성, 혁신과 위험감수성 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렇듯 기업가정신이란 단순히 기업가가 되기 위한 자질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 발휘되어야 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상의 문헌을 종합해 보면 기업가정신은 혁신성, 진취성, 그리고 위험감수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정신과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와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자세와 능력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청소년 시기에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과 결핍에도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 및 가치관을 정립하는 측면에서도 청소년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중요하며 그들의 미래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의사결정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자기효능감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된다(Bandura, 1986). Taylor와 Betz(1983)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제안하여 진로발달과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였다. 이들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이라고 하고, 진로결정에 있어 확신이 없는 학생들이 자기 효능감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특히 청소년에게 새로 주어지는 환경에서 다양한 미래 계획이나 진로를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며,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또는 신념을 나타내는 변인으로서 학생의 진로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임나영, 이창훈, 20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되는 기업가정신이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높고, 진로결정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두 변인 사이의 정적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신선아, 정종철, 2015). 이은경(2002)은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의 결정에 있어 주체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완성과 김미숙(2009)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근 진로발달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매개변인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조명실, 최경숙, 2007). 개인이 진로를 결정할 때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인 신념이 중재 변인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는 행동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 수준이라는 중재변인에 근거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박완성, 김미숙, 2009). 이를 토대로 안현자와 이창환(2011)은 자기효능을 매개로 진로태도 성숙으로 연결된다는 결과를 통해 진로에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성장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힘써야 한다는 것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따라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나아가 기업가정신을 통해 진로성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경로를 확인하고 둘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변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정신과 진로성숙도에 대한 매개변인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기업가정신 교육의 더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3. 진로성숙도

일반적으로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란, 청소년들이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확신, 적응 및 수행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진로발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이기학, 1997; 최미경, 2015). Crites(1978)에 따르면 진로성숙도란 동년배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로, 진로선택과 결정을 할 때, 자신에게 올바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정미나, 노자은, 2016에서 재인용). 특히, 청소년기는 진로태도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김충기, 1999), 진로성숙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성과목표로 고려되어야 할 개념이다(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 정미나, 노자은, 2016). 진로발달이론에서 진로는 어느 한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에 이를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김충기, 1999). 진로발달의 정도와 진로가 발달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행동차원들을 나타내기 위한 개념이 바로 진로성숙도이다(이희영, 2003; 신선아, 전종설, 2015).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진로발달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진로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진로성숙도가 낮은 사람에 비하여 자신에게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효희, 성태제, 2008).

진로선택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일반적으로 진로선택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정시기에 진로와 관련하여 주요 선택들을 하게 되고, 진로성숙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진로를 더 잘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진로 탐색기에 해당하며, 진로와 관련한 의식 및 태도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시기로 고려되고 있다(Super, 1957; Crites, 1974; 최윤희, 이문희, 2011에서 재인용). 청소년기에 진로성숙도를 잘 발달시켜야 향후에 그들에게 더 적합하고 합리적인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현재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살펴보고 그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과업이라 할 수 있다(신선아, 전종설, 2015).

청소년기는 ‘자기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을 형성해가는 시기이며,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준비하는 결정적인 시점이다(신선아, 전종철, 2015). 이러한 시기에 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을 포함한 기업가정신이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기업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차이,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영재학생들과 이와 비슷한 연령대의 서울·경기권 소재 중·고등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과정은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2009년도에 KAIST와 POSTECH에 설립된 교육원으로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창의적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중학생 기업영재를 선발하여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 학생들을 영재기업인 혹은 기업영재로 지칭하고 있다(이찬, 최유현, 오창환, 김미애, 2010; 최민경 2013; 최민경, 이경표, 2013; 이행은, 이운조, 유현실, 김선주, 2014; 이견남, 이종범, 이운조 2015). 이 연구에서는 이 학생들을 기업영재로 지칭한다. 기업영재는 2년간 기업가정신, 미래통찰력, 지식재산전문성, 인문소양의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한다. 온라인교육에서는 지식재산권, 미래기술트랜드, 기업가정신, 인문학, 기업사례연구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온라인 교육에서 신장한 지적 역량을 실제 기술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생성 및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학생은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과정의 학생들과 비슷한 학년 급으로 서울·경기권 관내 일반 중학교 7개, 고등학교 2개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기업영재		일반학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08	56.8	404	61.2
	여자	82	43.2	256	38.8
	계	190	100.0	660	100.0
학교급	중학교	104	54.7	370	56.1
	고등학교	86	45.3	290	43.9
	계	190	100.0	660	100.0

## 2. 변수의 측정도구

기업가정신은 Miller(1983), Covin과 Slevin(1991), 유민형, 이준우, 송인암(2016), 최용석, 이재은, 강지원, 김석누, 한가록(2016)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창의적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구성된 3개의 하위요인에 각 6문항씩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3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  .9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가  $\chi^2(136)=6286.45, 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나 사용된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통성을 확인한 결과 17 문항 중 2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이 .50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공통성이 .50보다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공통성이 낮은 문항들도 기업가정신을 측정하는 주요한 문항이라는 판단 하에 해당 문항들을 포함하여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수 선정을 위하여 설명량이 평준화 되는 지점과 고유치를 살펴본 결과, 이론적으로 구성된 기업가정신 측정 문항과 동일한 3개요인 17문항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전체 변량의 56.88%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을 수정해서 사용한 이은경(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4개 하위 요인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게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척도의 신뢰도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항 1개를 제외한 24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246)=994.27, p<.001, TLI=.90, CFI=.92, RMSEA=0.06(0.056\sim 0.064)$ 으로 타당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와 더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3, 목표선택 .88, 직업정보 .85, 문제해결 .66, 미래계획 .77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검사는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에서 연구 목적에 맞는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기학(1997)이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는 총 47문항, 다섯 가지 하위 요인(결정성, 목표지향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문항 및 이론적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된 문항 24개를 제거한 총 23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220)=876.87, p<.001, TLI=.92, CFI=.93, RMSEA=0.059(0.055\sim 0.063)$ 로 타당한 수준이었다. 이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결정성 .87, 목적성 .88, 확신성 .83, 준비성 .75, 독립성 .83, 그리고 전체 .90으로 나타났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기업영재와 일반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7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설문조사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고, 설문 방법으로는 직접 배포, 우편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총 1,000부를 배포하



였고, 회수한 응답 중에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 결측값 등을 제외한 총 850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1.0을 이용하여 *t*-test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Hayes와 Preacher(2013)가 제시한 SPSS Macro Process 2.13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진로성숙도에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Process 프로그램은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모형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최근 다양한 연구영역(염동문, 이성태, 2014; 홍나미, 2013; 박영아, 2014)에서 선호되고 있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 사례 수가 큰 경우 충분한 검증력을 보이고, 정상분포를 가정하는 경우 검증력의 수준이 떨어지는 Sobel 검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가상의 무선 표본을 만들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사례 수가 적은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biased-corrected 방법을 사용하여 5,000개의 표본을 재추출하고, 이를 95% 신뢰구간에서 그 유의성을 살펴보았으며,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 IV. 연구 결과

##### 1.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이 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기업가정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48.7% 설명하고 있었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67.41, p<.001, \text{Durbin-watson}=1.871, R^2=.487$ ). 기업가정신의 하위 요인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진취성( $\beta=.39$ ), 위험감수성( $\beta=.18$ ), 창의적 혁신성( $\beta=.13$ ) 순이었다. 결과에서 보듯이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기업가정신과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표준오차	$\beta$	<i>t</i>	Sig
(상수)	.092	1.19	12.937	.00
창의적 혁신성	.029	.13	4.54	.00
진취성	.030	.39	12.94	.00
위험감수성	.029	.18	6.17	.00

$R=.698, R^2=.487, \text{adj } R^2=.485, F=267.41, p<.001, \text{Durbin-Watson}=1.871$

<표 3>은 기업가정신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다중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F=181.42, p<.001, \text{Durbin-watson}=2.056, R^2=.391$ ), 기업가정신은 진로성숙도를 39.1% 설명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정신의 하위요

인들은 진취성( $\beta=.36$ ), 창의적 혁신성( $\beta=.17$ ), 위험감수성( $\beta=.07$ ) 순으로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기업가정신과 진로성숙도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표준오차	$\beta$	$t$	Sig
(상수)	.10	1.54	16.06	.00
창의적 혁신성	.03	.17	5.85	.00
진취성	.03	.36	11.30	.00
위험감수성	.03	.07	2.40	.02

$R=.626$ ,  $R^2=.391$ , adj  $R^2=.389$ ,  $F=181.42$ ,  $p<.001$ , Durbin-Watson=2.056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정신이 높은 학생들이 미래의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높은 자신감을 가지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기업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 차이

기업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  $t$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차이

	변수	영재학생(SD)	일반학생(SD)	$t$
기업가정신	창의적 혁신성	3.96(.50)	3.25(.62)	16.52***
	진취성	4.34(.48)	3.68(.63)	15.78***
	위험감수성	4.04(.57)	3.40(.67)	13.16***
	전체	4.12(.41)	3.45(.53)	18.6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목표선택	4.34(.54)	3.76(.65)	12.42***
	직업정보	4.29(.57)	3.68(.69)	12.41***
	문제해결	4.18(.74)	3.66(.78)	8.19***
	미래계획	3.94(.60)	3.34(.69)	10.94***
	전체	4.19(.46)	3.61(.55)	14.53***
진로성숙도	결정성	4.02(.86)	3.49(.96)	6.88***
	목적성	3.90(.96)	3.40(.87)	6.90***
	확신성	4.29(.62)	3.70(.67)	10.93***
	준비성	4.23(.61)	3.71(.70)	10.04***
	독립성	4.36(.62)	3.89(.69)	9.04***
	전체	4.16(.49)	3.64(.53)	12.29***

\*\*\*  $p<.001$ .

일반학생의 기업가정신은 전반적으로 5점 리커트 척도에서 평균 3.25( $SD=.62$ ), 3.68( $SD=.63$ ), 3.40( $SD=.48$ )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영재의 기업가정신은 3.96

( $SD=.50$ ),  $4.34(SD=.48)$ ,  $4.04(SD=.57)$ 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요인 모두 일반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t=16.52, p<.001$ ;  $t=15.78, p<.001$ ;  $t=13.16, p<.001$ ). 특히 기업영재학생들은 진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학생과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즉, 기업영재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기업가정신이 높고, 특히 진취성이 높아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과 자신감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역시 일반학생  $3.61(SD=.55)$ ,  $3.64(SD=.53)$ 보다 기업영재학생이  $4.19(SD=.46)$ ,  $4.16(SD=.49)$ 으로 높게 나타났다( $t=14.53, p<.001$ ;  $t=12.29, p<.001$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에서도 전체적으로 기업영재가 일반학생보다 높은 자신감과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영재가 일반학생보다 미래 계획이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강하며,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결과이다.

3. 기업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가. 기업영재학생

1)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기업영재학생들의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1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기업영재학생의 기술통계

구분	N	M	SD
기업가정신	190	4.16	.4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90	4.12	.41
진로성숙도	190	4.19	.46

기업영재학생의 측정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표 6>과 같이 실시한 결과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r=.545, p<.001$ ;  $r=.585, p<.001$ ).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632, p<.001$ ).

<표 6> 기업영재학생의 상관관계분석

구분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기업가정신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545***	1	
진로성숙도	.585***	.632***	1

\*\*\*  $p<.001$ .

2) 기업가정신과 진로성숙도의 영향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기업영재들의 기업가정신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기업가정신이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전체효과(c)는 .66( $p<.001$ )로 나타나 기업가정신이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업가정신이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그 결과 경로회귀계수가 .72( $p<.001$ )로 나타나 기업가정신이 높으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결과 경로회귀계수가 .43( $p<.001$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업가정신이 진로성숙도에 미쳤던 효과에 비해 절대 값이 감소된 것이었다. 이는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정신과 진로성숙도와 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7> 기업영재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모델1				모델2				모델3			
	종속변인: 진로성숙도				종속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종속변인: 진로성숙도			
	B	SE	$\beta$	t	B	SE	$\beta$	t	B	SE	$\beta$	t
기업가정신	.66	.07	.55	8.92***	.72	.06	.63	11.18***	.35	.09	.29	3.9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3	.08	.40	5.44***

\*\*\*  $p<.001$ .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SPSS Macro Process 2.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bias-corrected* 방법을 사용하여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고, 이를 95% 신뢰구간에서 살펴본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기업영재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변인	매개효과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BootLLCI	BootULCI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460	.0584	.1302	.3567

나. 일반학생

1)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다음 <표 9>는 일반학생들의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9> 일반학생의 기술통계

구분	N	M	SD
기업가정신	660	3.64	.5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660	3.45	.53
진로성숙도	660	3.61	.55

일반학생들의 측정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 10>과 같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가정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r=.519, p<.001$ ;  $r=.678, p<.001$ ).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608, p<.001$ ).

<표 10> 일반학생의 상관관계분석

구분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기업가정신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519***	1	
진로성숙도	.678***	.608***	1

\*\*\*  $p<.001$ .

2) 기업가정신과 진로성숙도의 영향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일반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일반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경로회귀계수는 .51( $p<.001$ )로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일반학생의 기업가정신이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경로회귀계수가 .63( $p<.001$ )으로 나타나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반학생의 기업가정신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본 결과 경로회귀계수가 .55( $p<.001$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업가정신이 진로성숙도에 미쳤던 효과에 비해 절대값이 감소된 것으로 일반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진로성숙도의 영향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를 하고 있었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SPSS Macro Process 2.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표 11> 일반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모델1				모델2				모델3			
	종속변인: 진로성숙도				종속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종속변인: 진로성숙도			
	B	SE	$\beta$	t	B	SE	$\beta$	t	B	SE	$\beta$	t
기업가정신	.51	.03	.52	15.57***	.63	.03	.61	19.61***	.17	.04	.17	4.7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55	.03	.57	16.19***

\*\*\*  $p<.001$ .

이 연구에서 채출한 표본의 수는 5,000개였고, 이를 95% 신뢰구간에서 살펴본 결과 매개 효과 계수의 하한 값과 상한 값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직접 효과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고려했을 경우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표 12> 일반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매개효과와 부트스트래핑 결과

변인	매개효과 계수	Boot SE	95% 신뢰구간	
			BootLLCI	BootULCI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512	.0290	.1977	.3110

V. 결 론

이 연구는 기업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영재학생들과 수도권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학생들 8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업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의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업가정신과 진로성숙도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Macro Process 2.13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의 창의적 혁신성, 진취성 및 위험감수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이 진로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문경목, 양영석, 김명숙, 2013; 길명숙, 류덕위, 김명숙, 2016). 둘째, 기업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영재학생이 일반학생에 비해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 전반과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기업가정신 요소 중 특히 진취성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점에서 기업영재들이 일반학생들보다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기업영재학생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영재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신감과 확신이 높으며, 진로를 계획하는 정도가 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Holland의 이론에 따른 진로유형 비교연구에서 영재학생의 경우 일반학생과 다른 진로유형을 보이고 있었으며(정미선, 김원정, 조운행, 2010), 영재학생은 일반학생보다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유순화, 윤경미, 강승희, 2006; 임동순, 양연순, 2016). 마지막으로 기업영재학생과 일반학

생의 기업가정신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은 증가하고, 기업가정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에 의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인식과 관련된 연구에서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지니는 요인임을 밝히는 다수의 연구(이은경, 이혜성, 2002; 임동순, 양연순, 2016; 정미나, 노자은, 2016)와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가진 요인임을 밝힌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이기학, 이학주, 2000; 이은경, 이혜성, 2002; 임나영, 이창훈 2015). 선행연구 및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에게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함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의미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기업영재들이 그렇지 못한 일반 학생들에 비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진로개발 프로그램에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기업가정신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기업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기업가정신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점은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교육이 실시될 때, 학생 스스로 자신을 살펴 보면서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첫 시작 역시 나를 알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데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이 청소년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의 중요성과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시도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창업 스킬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어 부정적 견해도 많이 있다. 하지만 기업가정신이 단순히 창업을 위한 용도를 넘어,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발휘되어야 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이며, 청소년 시기에 가져야 할 올바른 인성 및 가치관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진로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요구는 있었으나 해당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역시 창업 교육에 치중되어 기업가정신 자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영재교육분야에서도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

업가정신 확산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비중은 매우 낮으며 창업 지식 함양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KAIST과학영재교육연구원, 2015). 앞으로는 창업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기업가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더불어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접근 시도가 요구된다. 또한 기업가정신과 진로교육을 따로 강화하기보다는 진로 변화 학습체계와 연계한 교육과정설계를 통해서 진로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이 진로교육과 연계되고 자연스럽게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기업가정신이 자신감과 성취욕구와 같은 개인의 의지와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진로교육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체계적인 실행은 진로인식변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로교육과 기업가정신 교육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자료 수집을 위한 표본 선정에 있어 차세대영재기업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영재학생들과 일반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영재 교육 전체에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타 영역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타 영역의 영재들을 포함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진로인식이 학교급, 성적 분포, 기업가정신교육 경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집단 간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교육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제고와 진로교육으로서 올바른 기업가정신 교육이 구성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길명숙, 류덕위, 김명숙 (2016). 성격 5요인 조절효과를 통한 창업가정신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1), 47-60.
- 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3), 19-36.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김충기 (1999). 진로발달 접근을 통한 진로 계획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0(1), 135-182.
- 문경목, 양영석, 김명숙 (2013). 창업교육 만족도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벤처창업연구**, 8(4), 9-23.
- 박영아 (2014).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에 의한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5(3), 1-14.
- 박완성, 김미숙 (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수도권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2(4), 85-108.
- 박효희, 성태제 (2008).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 부모-청소년 자녀 유대가 미치는 종단적



-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9(1), 117-142.
- 배종태, 차민석 (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중소기업연구**, 31(1), 109-128.
- 변영조, 김명숙, 양영석 (2014). 청소년 창업교육프로그램 효과성 측정지표 개발 연구. **벤처창업연구**, 18(4), 77-85.
- 신선아, 전종설 (2015). 청소년의 애착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7(3), 111-136.
- 안현자, 이창환 (2011).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미래교육학연구**, 24(1), 1-21.
- 유민형, 이준우, 송인암 (2016).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기업가정신 및 심리적 성장환경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성격 5모델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1), 49-68.
- 유순화, 윤경미, 강승희 (2006). 과학영재 중학생과 일반 중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상담학연구**, 7(2), 399-415.
- 이건남, 이종범, 이윤조 (2015). 차세대 영재 기업인의 커리어 패스. **실과교육연구**, 21(4), 57-79.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은경 (2002).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및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이은경, 이해성 (2002). 진로결정효능감이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09-120.
- 이은주 (2006). **여대생의 진로성숙과 진로포부 간의 관계**.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찬, 최유현, 오창환, 김미애 (2010).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 체계 개발. **실과교육연구**, 16(3), 227-256.
- 이현림, 천미숙 (2004). 고등학생의 의사결정능력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성숙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7(2), 106-128.
- 이희영 (2003). **진로성숙과 상담**. 서울: 학지사.
- 이행은, 이윤조, 유현실, 김선주 (2014).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 참여자들의 상담 요구 분석. **영재와 영재교육**, 13(2), 215-247.
- 임나영, 이창훈 (2015).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 변인 분석. **직업과 자격연구**, 4(1), 103-122.
- 임동순, 양연숙 (2016).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영재와 영재교육**, 15(2), 169-184.
- 염동문, 이성대 (2014). 매개된 조절모형과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한 직장차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무만족과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4(1), 139-165.
- 정미나, 노자은 (2016).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2(3), 133-162.

- 정미선, 김원정, 조운행 (2010). 과학영재교육원 및 일반 중학교 학생의 Holland 진로탐색검사를 통한 진로 적성 비교 분석 연구. **과학영재교육**, 2(1), 1-10.
- 조명실, 최경숙 (2007). 진로상담: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도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임상 연구에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의 비교 및 통합. **한국심리학회지**, 34(4), 1113-1131.
- 최미경 (2015). 남녀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2(8), 287-321.
- 최민경 (2013). 기업영재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영재교육연구**, 23(6), 1117-1145.
- 최민경, 이경표 (2013). 기업영재 종단연구의 이론적 제언 및 고찰. **영재교육연구**, 23(5), 793-815.
- 최윤희, 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9(2), 171-187.
- 최용석, 이재은, 강지원, 김석누, 한가록 (2016).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5), 15-27.
-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2015).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 운영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창의재단.
- 한수정 (2013).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25(1), 559-566.
- 홍나미 (2013).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통한 우울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21(1), 37-58.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2014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부.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umol, W. J. (1990). Entrepreneurship: productive, unproductive, and destruc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893-921.
- Covin, J. G., & Slevin, D. P. (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7-25.
- Hayes, A. F. & Preacher, K. J. (2013).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with a multicategorical independent variable.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67(3), 451-470.
- Hitt, M. A., Ireland, R. D., Camp, S. M., & Sexton, D. L. (2002). *Strategic entrepreneurship, creating new mindset*. Oxford, UK: Blackwell Publishing.
- Kuratko, D. F. & Hodgetts, R. M. (2004). *Entrepreneurship: Theory, process and practice (6th ed.)*. South-Western: Thomson.
- McClelland, D. C. (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J: Van Nostrand.
- Miller, D. (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Shane, S., & Venkataraman, S. (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he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2008). *Entrepreneurship in higher education, especially within non-business studies*. Brussels: Final Report of the Expert Group.

= Abstract =

##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Up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the Entrepreneurial Gifted and General students

Min-Jung Baek

KAIST

Min-Seo Park

KAIST

Kyung-A Kwon

KAIST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up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the entrepreneurial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 -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using SPSS 21.0 and SPSS Macro Process to investigat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career maturity behavior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190 the entrepreneurial gifted students and 660 general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significant.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entrepreneurship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 - efficacy and career maturity. Second, the entrepreneurial gifted students showed higher scores in entrepreneu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compared to the general students. Thir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identified to act as a partial mediator in the relation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career maturity for both entrepreneurial gifted and general students groups.

**Key Words:** Entrepreneu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The entrepreneurial gifted students, The gifted enterprisers of the next generation

1차 원고접수: 2017년 8월 14일
수정 원고접수: 2017년 9월 18일
최종 게재결정: 2017년 9월 27일